

한국 남성의 성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

2003年 8月 20日

全北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이 미 정

한국 남성의 성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

指導教授 薛東勳

이 論文을 社會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8月 20日

全北大學校 大學院

社會學科

이 미 정

이미정의 社會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番 全北大學校 教授 南 春 浩 ㉠

委員 全北大學校 教授 鄭 喆 熙 ㉠

委員 全北大學校 助教授 薛 東 勳 ㉠

2003年 8月 20日

全 北 大 學 校 大 學 院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법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회·문화 전반적 의식에는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거나, 또는 인류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2002년 군산 대명동·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인권 유린의 현실이 알려지면서 성매매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성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4조원 가량으로 국내 총생산의 4.1%에 해당하며 전체 하루 평균 성구매자는 36만 8천여 명으로 추정되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이러한 발표가 나자 여러 매체에서는 ‘한국 사회는 성매매 공화국’, ‘남성들의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성매매 현실에 대한 개탄과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가 번창해올 수 있었던 정치·경제적 배경은 일제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통치수단으로 유입된 공창 제도는 처음으로 성매매 문화를 공식화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기생이나 관기를 통한 소수 지배층에서만 존재했던 성매매 형태가 일제 식민지 기간 공창과 사창을 통해 가부장적 성문화와 결합하여 아무런 거부감 없이 향유되면서 남성들에게 보편화되었다(변화순·황정임, 1998).

이후 미군정시기 새로운 성매매 유형으로 등장한 기지촌은 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성산업 도시들의 발달 유형을 보여준다. 성매매는 사회적 비난과 멸시속에서도 군대문화에 기생하여 여성의 성착취를 공고히 하였다.

1960년부터 80년대를 거쳐 경제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성산업은 관광 산업으로 보호 육성된다. 초기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생관광 외화벌이와 접대 문화는 점차 사회 전반에 퇴폐·향락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부터 농촌 곳곳까지 다양한 형태로 번창하게 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인식속에는 성매매에 대한 남성 중심의 이중적 성의식이 존재하고 있다(조형·장필화, 1991).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우리사회에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원인에 대해 ‘차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36.5%) 이라는 응답과 ‘성매매 행위를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25.9%) 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성매매 문제에 대해 첨예한 논쟁은 인간의 ‘성(性)’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는 시장사회에서, 성적 행위를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나 신체이자 정서와 감정의 기능을 하는 ‘성(性)’은 인간 권리의 기본 토대이고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고 있다.

장필화(2001)는 ‘성(性)’이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할 때, 성적 행위를 하는 성판매자들은 자신을 신체로부터 분리시키고, 파편화된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성구매자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속에서 매혈이나 장기를 매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자아’와 ‘신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사용권이 매매되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성판매자의 경험과 사례연구 또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 방안에 초점을 두어왔다(장필화, 2001). 또한 대부분의 성매매 문제를 다루어 온 연구물이나 사회적 시각은 성매매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왜 여성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병리학적 요소나 일탈적 속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의 전체 구조를 알기에는 조각 그림에 불과하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원미혜, 1999).

캐슬린 배리(1995)는 성매매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성의 성구매 수요가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성부(2001)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사례 연구』에 따르면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스웨덴, 비범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합법적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성구매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성매매 범죄자 프로그램으로 제안된 ‘John school’ 등은 남성들의 성구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 사례로 알려지고 있어 성구매 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요구를

통해 성을 사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을 보강할 것을 주장한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성매매 관련 연구는 성매매 여성, 성산업 실태, 성매매 정책 등에 대해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성구매 행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남성의 성매매 의식과 성구매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태도와 인식이 성구매 행동을 하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성구매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남성의 성구매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성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성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해 성구매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1)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금지주의를 유지하되 성매매 된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형사면책의 폭을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②‘성매매 관련 일체의 매개체 차단 및 퇴출’에 두고 그들이 얻은 수입은 불법수익으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성산업’을 경제적으로 퇴출되도록 하였다. ③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범죄가 늘어가는 현실에 대해 성매매 범죄의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강요·광고·모집·유인·권유·장소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④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⑤성을 사는 자를 교육하는 것은 성매매 방지를 위해 매우 효과가 있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을 보강한다. ⑥국제적 성매매 방지조항, ⑦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매매에 관한 이론

현재 성매매에 대한 법적 용어는 ‘윤락(淪落)행위’로 사용하고 있다. ‘윤락(淪落)’이라는 단어는 사전 의미상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여성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적 대가를 위해 성을 파는 행위’로 보고, 도덕적·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1990년대에 이르러서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성을 파는 여성과 이를 구매하는 남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에서였지만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가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후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용어를 사용함을 밝힌다.

성을 구매하는 사람으로서 ‘성구매자’, ‘성구매 남성’, ‘남성 구매자’ 등 행위 중심으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을 사고(수요), 파는(공급) 행위에 초점을 두고 수요자·공급자로 정의하여 수요자 측면을 ‘이용 남성’으로 사용하였다(변화순·

황정임,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구매’, ‘성구매자’로 사용함을 밝힌다.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견해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그리고 급진적 여성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엘리슨 재거, 1996).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성매매를 단지 또 하나의 직업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성매매에 관한 법적 금지는 곧 개인의 자기 몸에 관한 인격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의 탈범죄화를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 모던 여성주의 입장의 성매매 여성의 권리 옹호자(Pro-prostitutionist)들은 성매매라는 개념보다는 성노동(sex work), 성노동자(sex worker)라는 표현을 선호한다(Barry, 1995). 이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화된 개념보다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행위로 받아들이고자 함에 있다. 미국의 성매매 여성의 권리 조직인 COYOTE(Call Off Tired Old Ethics)는 성매매를 혼외 성관계, 익명적 성, 여가적 성, 그리고 성으로 느끼는 새로움과 다양성으로서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거슨, 1996; 한국여성개발원, 1998 재인용). 동시에 남성과 성매매 여성을 구별하지 않도록 성중립적인 언어로 쓰여져야 하며, 이성애적 성교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직업으로서 성노동은 특별히 성별화되어 있다. 서비스는 남성들에 의해 구매되고 남성들을 위해 제공되는데, 성적 서비스는 남성 지배의 특권일 뿐 아니라 지배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부장적 권력의 배치 속에서 감정과 성이 노동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은

여성에 대한 착취이며 인간의 성적 경험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캐슬린 배리, 1995).

자발적 성노동에 대한 견해를 다루고 있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현재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국제적 성착취·인신매매 문제 등 동의 여부를 표명할 수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는 자유주의 여성주의처럼 성매매를 임노동에 비유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 ‘임금노예’의 비열하고 강제적인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성매매를 없애고자 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성매매를 금지하는 노력과 실험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남성의 성구매 판로를 차단시켰으나 성을 사려는 정부의 관리, 외교관, 외국인 사업가를 위해서 여전히 여성을 제공하고 비밀스럽게 이용하였다. 이들은 성매매를 억제하는 정책에 불구하고 그 기저에 깔린 성 불평등, 성 착취, 가부장적인 성매매 인식의 변화에는 실패하였다. 사회주의 공산권이 해체되고 시장 경제에 완전히 개방되자 성매매가 대량 확산되었다. 1990년 소비에트 연방 전역에서 5,849명의 여성이 성매매로 체포되었으나 성구매자들은 체포되지 않았다(캐슬린 배리, 1995).

급진적 여성주의는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의 성중립적인 분석들을 거부하고,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성별화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성차별에 기인한 여성이 다른 직업을 갖는 기회 제한의 결과이며 여성들이 성매매 같은 일로 신체적으로 강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성매매 여성은 희생자이며 강요된 성매매에 대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여성의 지위를 올리고 성에 대한 공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주장한다 (엘리슨 재거, 1996).

성매매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Prostitutes' Rights)는 서구의 성매매가 인종차별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의 상호교차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명백히 한다.

WHISPER(Women Harmed in System of Prostitution Engaged in Revolt)는 북미의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민초 운동으로서 성매매를 성적 착취로 보는 급진적 여성주의 분석에 의존한다(Bell, 1995; 123-4; 엘리슨 재거, 1996 재인용). 이들은 여성의 몸을 성적인 거래를 위해 상품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체계”라는 것이다.

국내의 성매매에 대한 논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새움터 등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 단체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는 입장이다(김현선, 2002). 이들은 그동안 성착취적인 성매매 굴레와 억압속에서 생명과 인권의 위협을 받았던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연구와 조사활동을 통해 성매매의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본질을 규명하고 있다.²⁾

또 다른 견해는 일부 행정관료 및 경찰공무원, 학자 등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을 바에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

2) 여성주의적 시각의 성매매 연구는 원미혜(1997), 이효희(1998), 성윤애(2001), 정경숙(2001), 김현선(2002) 등이 있다.

하여 특수한 지역의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김현선, 2002). 이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의 거대한 착취 고리인 포주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관점과 견해의 차이를 나타내며 진행되고 있다.

2. 성구매자에 관한 선행 연구

한국의 성구매자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한국 남성의 성문화와 성행동을 다룬 연구 중 부분적으로 성구매 경험과 의식을 조사하거나, 성매매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성구매자 문제를 포괄하여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한국 남성의 성문화와 성의식을 다룬 연구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겠다.

한국 사회 남성의 성문화를 연구하고 탐색하는 초기 연구로서 조형·장필화(1991)의 연구가 있다. 한국 사회의 남성의 성문화의 특성을 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규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남성의 성 인식에 특성은 지극히 성관계 중심의 성개념을 갖고 있었고, 상대 여성에 대한 소유 의식의 확인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났다. 또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인식은 ‘정숙한 여성’과 ‘정숙하지 않은 여성’으로 이분화된다. 성경험에 있어서 특징은 남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불법 혹은 일탈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성경험을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일

상 행위로 경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체의 63.7%가 매매춘을 경험한 적이 있고 포르노의 경우 98%가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행동에서 남성은 스스로 여성을 주도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남성 자신의 성은 허용적이거나 심지어 적극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남성의 성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매매춘 경험과 혼외성경험을 연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연령에 있어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경험률과 경험 횟수도 많아졌다. 직업별로는 혼외 성경험률에 있어서 전문직, 사무직, 관리직 간에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매매춘 경험률에서는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연구 결과 한국 남성 성문화 형성에는 성 이중 규범이라는 이데올로기 측면과 상품화 된 성이 보급이라는 경제 구조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매매를 경험하는 한국 남성의 성행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은 수도권 일원의 노동자 1천 39명과 서울시내 대학생 1천 1백 51명을 대상으로 한 ‘미혼 남성의 성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윤락 여성과의 성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동자의 62.8%, 대학생의 26.4%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윤락 여성 중에는 매춘부(39.9%), 술집여자(23.6%), 유흥업소 여자(20.1%)의 순이었고, 그 밖에 안마시술소, 다방 종업원, 이발소 종업원 등의 경우가 있었다. 윤락 여성과 첫 경험을 가지는 경우 동기는 노동자의 경우 ‘친구나 아는 사람이 부추겨서 타의로 갔다는 경우’가 45.1%였고, ‘자의반, 타의반’이 39%, ‘스스로 결정한 경우’는 14.3%로 나타났다. 또 노동

자의 49.3%, 대학생의 71.8%가 친구 및 동년배와 함께 윤락가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경우 윤락 여성과의 성경험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군대 경험으로 군필자의 경우 경험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성매매 경험이 자연적·본능적 부분이기보다 사회 생활을 경험해 가는 과정에서 체득해 가는 문화적 산물로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산업의 발달로 상업화된 성매매 경험과 성매매에 대한 남성 의식의 연구 결과를 다음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8)의 『산업형 매매춘 연구』는 기존의 집촌을 형성하고 있는 전통형 매매춘과 달리 서비스 산업이 가진 1차적 목적인 서비스 외에 2차적 서비스로 매매춘 행위가 확장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성산업 현실에서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의식이 결합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매매춘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으로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 상황에 적합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측면을 다룬 성구매 분석 결과만을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 남성들의 업소 이용 현황을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순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매매 이용 경험이 많은 업소는 안마시술소, 증기탕, 퇴폐이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산업의 본래 목적과 달리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증기탕 등에서 매매춘이 직접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소를 이용하는 계기에 대해서는 ‘회식 및 단합모임 코스 중 하나로 혹은 동료나 친구들끼리 어울리기 위해서’가 전체 응답자의 45%를 차지하고, ‘스트레스와 피로 혹은 성적욕구를 풀기 위해서’가 23.4%으로

나타났다. ‘업무 접대 차원’은 20%가 답변하였다. 반면 성매매를 이용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가 전체 응답자의 51.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식이나 단합모임 등의 분위기에 휩쓸려서’로 25.7%, ‘업무 접대 차원에서’가 1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매매를 이용하는 남성들은 스트레스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회식이나 단합모임 등의 분위기 등이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업소 이용 남성의 성문화 및 성의식에 대한 조사는 가부장적 성문화, 남성놀이문화, 과소비·향락문화, 성상품화, 접대문화 등이 성매매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중 가부장적 성문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성매매 경험과 유의미한 관련성은 연령, 학력, 결혼상태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 30세 미만이 30대, 40대 집단에 비해 성매매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고,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성매매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상태에서는 이혼, 사별, 별거의 경우가 기혼보다 성매매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은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대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의 점진적 해체와 근대성의 발전에 따라 한국인의 성의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제적·남성우위적 성적 질서로부터 성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상업화 추세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남녀간의 성의식의 인식격차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산업의 발달과 성적 서비스 산업의 노출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 집단에서 성적 서비스 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성부(2002)의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분포는 전국적으로 총 69개가 분포하고 있고, 성매매 관련업소의 성매매화 비율은 일반유흥주점의 경우 79.9%, 무도유흥주점은 45.6%, 간이주점은 9.0%, 지방의 다방의 경우 38.7%, 노래방 18.2%, 이발소 11.3%, 마사지업소의 성매매화 비율은 37.9%로 추정하였다. 이를 이용하는 성구매 고객 수는 업소당 평균 6.17명으로 추산할 수 있었으며 한해동안 성구매 경험이 있는 20~64세 남성 성인 인구 20%가 월 평균 4.5회 정도의 성적 서비스 구매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성구매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성구매 경험은 자본주의 발달하에 성상품화와 남성 중심의 이중적 성규범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 문화 전반에 성구매 허용도가 높은 성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성구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매매에 대한 태도로 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는 성구매 경험과 횟수로 하였다.

[연구질문 1] 한국 남성의 성구매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질문 2] 성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어떤 것인가?

[연구질문 3]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성구매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질문 4] 사회인구학적 특성중 연령, 혼인상태, 직업, 월평균 소득 등은 성구매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내 6개 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이상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총 477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분포로는 전주시(283명), 익산시(52명), 군산시(82명), 정읍시(16명), 김제시(22명), 남원시(22명)이 응답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로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설문에 대한 답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고, 전주 지역의 경우 주로 30대 연령층이 주를 이루는 민방위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4. 변수의 구성과 측정

(1) 종속변수

- 성구매 경험과 횡수

성구매 경험과 횡수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성매매

이용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2년동안 성매매·성산업 업소 이용 경험과 횟수에 대해 측정하였다. <표 1>은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업소 및 유형이다.

<표 1>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업소 및 유형

구분	법률	업소종류	법적정의	성매매유형
식품 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	휴게 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티켓다방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방석집, 맥주·양주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가요주점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리방, 룸싸롱, 비즈니스클럽, 미시촌, 미시방, 미시클럽, 과부촌, 나이트클럽, 맥주·양주
공중 위생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여인숙, 여관, 모텔
		목욕장업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증기탕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이발관, 이용업
안마업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7조	안마시술소	안마사가 안마시술을 위하여 개설하는 업소	안마시술소
관광 편의 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	식품위생법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기지촌의 클럽
전기 통신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	기간 통신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	전화방, 휴게방, 남성휴게실

자료출처: 『경기도 지역 성매매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새움터, 2001.

성구매 이용 경험과 횟수에 대한 문항 구성을 위해 전북여성단체연합(2002), 새움터(2001), 여성부(2002)의 실태조사 등에서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업소 유형 분류중에서 성매매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유형을 측정 대상으로 삼았다. 성구매 이용 경험 대상을 선정하는데 성매매 비율화를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의 성구매 이용실태는 ‘전업형 성매매’와 ‘겸업형 성매매’로 이분화 되어 있다. ‘전업형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집결지로서 100%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겸업형 성매매의 경우 단속과 처벌을 피한 가운데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새움터(2000), 전북여성단체연합(2002), 여성부(2002)가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업소의 표본조사를 통해 산출한 성매매 비율화를 근거로 하여 성구매 이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³⁾ 이 밖에 비업소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터넷 채팅 성매매 등은 최근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 측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성매매 집결지,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증기탕, 방석집, 인터넷 채팅 성매매 등 총 7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0,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의 값을 부여하여 만들었으며, 각 유형에 대한 경험의 합을 구한 결과 성구매 경험 횟수는 0부터 42회까지 부여되었다.

3) 전북여성단체연합(2002)의 조사에서 나타난 성매매화 비율은 단란/유흥주점 98.6%, 맥주양주·방석집 100%, 다방 69.9%, 숙박업 88.1%, 이용업 91.7%, 안마시술소 100%로 추정되었다.

(2) 독립 변수

독립 변수는 성매매에 대한 태도 변수와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구분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8)에서 사용된 남성의 성문화 및 성의식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성매매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문 항	기능적 태도	접대 향락문화	성구매 접근성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성들이다.	.794	.084	.122
성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780	.157	.049
성매매 여성이 있어야 성폭력이 예방 된다.	.713	.232	.213
접대를 잘하는 것도 업무능력의 연장이다.	.164	.857	.117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접대는 필요하다.	.201	.842	.106
남성들끼리 회식이나 술자리를 하면 애사심이나 동료애가 강해진다.	.076	.522	.119
나는 내가 원할때마다 성상품화 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026	.105	.770
나는 돈을 주고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곳을 알고있다.	.190	.077	.703
성매매집결지보다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더 낫다.	.191	.172	.642
Eigen Value	1.893	1.848	1.602

총 16가지 문항에 대해 응답 범주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의식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태도를 묻는 16가지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부하값이 .50이상인 것으로 하여 3가지 요인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위의 <표 2>와 같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 요인은 세가지로 분류되었고 그 각각의 요인은 첫 번째 사회 기능적 태도, 두 번째 접대·향락문화, 마지막으로 성구매 접근성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별 신뢰도를 구하였다.

요인 1. 사회 기능적 태도

성매매를 사회 기능으로 보는 태도는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성들이다’, ‘성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성매매 여성이 있어야 성폭력이 예방된다’ 는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선택지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사회 기능적 태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alpha .7011으로 신뢰할 만한 척도로 나왔다.

요인 2. 접대·향락문화

접대·향락문화는 ‘접대를 잘하는 것도 업무능력의 연장이다’,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접대는 필요하다’, ‘남성들끼리 회식이나 술자리를 하면 동료애가 강해진다’ 는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선

택지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집대·향락문화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694 이다.

요인 3. 성구매 접근성

성구매 접근성은 '나는 내가 원할 때마다 상점에서, 인터넷에서, 서점에서, 비디오가게에서 여성이 성적으로 상품화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나는 돈을 주고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같은 성매매 지역에 가는 것보다 단란주점, 티켓다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의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더 낫다'는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선택지는 5점 척도로 구성하다. 성구매 접근성의 Cronbach's alpha .5576으로 나왔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과 월평균 소득으로 구성하였다.

· 연령 :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를 기입하도록 하여 처리하였고 20세에서 60세까지 구성되었다.

· 혼인상태 : 혼인상태는 표본조사시에 5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를 하여 미혼자는 0, 기혼경험자(기혼, 사별, 이혼, 별거)는 1로 처리하였으며 미혼자가 기준이 된다.

· 학력 :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중학교 졸업은 1, 고등학교 졸업은 2, 전

문대 졸업은 3, 대학교 졸업은 4로 처리하였다.

· 직업 : 표본조사 자료는 직업에 대한 10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를 하여 전문직을 0의 값을 나머지 직업을 1의 값을 부여하여 만들었다. 전문직이 기준이 된다.

<표 3>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구 분	변 수	측 정
종속변수	성구매 이용 경험과 횟수	성매매집결지,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증기탕, 방석집, 인터넷 채팅 성매매
		성구매 경험 횟수 0~42
	성매매에 대한 태도	사회 기능적 태도 접대·향락문화 성구매 접근성
	사회인구학적 변수	
독립변수	연령	각세 단위 20~60세
	혼인상태	미혼 0, 기혼경험 1,
	학력	중졸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직업	전문직 0, 기타 1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100~200만원 2, 200~300만원 3, 300만원 이상 4

· 월평균 소득 : 월평균 소득은 총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월소득 100만원 이하는 1, 월소득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는 2, 월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는 3, 월소득 300만원 이상은 4로 처리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사용된 자료분석 통계방법은 먼저 변수간의 내적 일관성 조사를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구매 행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구매 경험과 횃수의 평균 차이 검정을 위해 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각 요인별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성구매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구매 경험 확률이 많은 사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구매 횃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구매에 대한 태도가 성구매 횃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IV. 조사결과 분석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본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는 전북 지역 20대 이상의 남성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4>과 같다.

조사 대상자 총 477명중에서 연령별 분포는 20세부터 60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20세에서 30세 미만이 29.1%, 30세이상 40대 미만이 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40대 이상이 13.8%이며 평균 연령은 33세이다.

조사 대상자의 혼인 상태는 미혼이 38.4%이고, 혼인 경험(기혼, 이혼, 사별, 별거 포함)은 61.6%이다.

조사 대상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60.8%로 가장 많았고 고졸, 전문대졸, 중졸이하 순이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이 20.3%였고 그 다음은 생산/기술직이 17.8%, 전문/자유직이 14.5%, 행정/사무직이 12.6%, 자영업 9.6%, 판매/서비스직, 경영/관리직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가 전체 응답자중 45.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300만원 이하가 27.3%, 1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내 용	응답자
연 령	20세 이상~30세 미만	139(29.1%)
	30세 이상~40세 미만	272(57.0%)
	40세 이상~60대 이하	66(13.8%)
	합계	477(100%)
혼인상태	미혼	183(38.4%)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등	294(61.6%)
	합계	477(100%)
학 력	중졸이하	8(1.7%)
	고졸	124(26.0%)
	전문대졸	55(11.5%)
	대졸이상	290(60.8%)
	합계	477(100%)
직 업	전문/자유직	69(14.5%)
	경영/관리직	31(6.5%)
	행정/사무직	60(12.6%)
	생산/기술직	85(17.8%)
	판매/서비스직	37(7.8%)
	자영업	46(9.6%)
	농업/임업/축산업	5(1.0%)
	학생	97(20.3%)
	무직	14(2.9%)
	기타	33(6.9%)
합계	477(100%)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4(15.5%)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18(45.7%)
	200만원 이상~300만원이하	130(27.3%)
	300만원 이상	55(11.5%)
	합계	477(100%)

다음은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성구매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성매매 집결지,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증기탕, 방석집, 인터넷 채팅 성매매에 대한 최근 2년간 이용 경험은 <표 5>와 같다. 이중 성매매 집결지 이용이 70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방석집을 이용한 경험자는 37명, 안마시술소 이용자는 27명, 증기탕 이용자는 15명, 티켓다방 이용자는 12명이며 인터넷 채팅 성매매 이용자는 10명이 응답하였다.

<표 5> 최근 2년간 성구매 이용경험

N=477

구분	최근 2년간 이용경험
성매매집결지	70(14.7)
티켓다방	13(2.7)
퇴폐이발소	12(2.5)
안마시술소	27(5.7)
증기탕	15(3.1)
방석집	37(7.8)
인터넷 채팅 성매매	10(2.1)

단위 : 응답자 수(%)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구매 경험과 횟수의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였다.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 학력, 월평균 소득에 따른 성구매 경험 유무와 횟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는 뚜렷하게 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혼인 상태의 경우 미혼자가 성매매 경험 횟수에 있어서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있어서 전문직이 타 직종에 비해 성매매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구매 경험 유무와 횟수의 따른 차이 검정

N=471

	분 류	성구매 경험 유무	성구매 횟수
연 령 대	20대 (139명)	.2158(.4129)	1.1367(4.451)
	30대 (267명)	.2360(.4254)	1.0487(3.634)
	40대 (65명)	.2000(.4031)	1.0510(2.175)
	F값	.241	.107
혼인상태	미혼 (182명)	.2637(.4419)	1.5110(5.03)
	기혼 (289명)	.2007(.4012)	.7612(2.57)
	F값	2.548	4.535*
학 력	중졸이하 (8명)	.1250(.3536)	.3750(1.0607)
	고졸이하 (122명)	.1967(.3992)	.8440(2.7741)
	전문대졸 (54명)	.3333(.4758)	.9259(2.0453)
	대졸이상 (287명)	.2195(.4146)	1.1672(4.3380)
	F값	1.570	.287
직 업	전문/자유직 (67명)	.3731(.4873)	1.2985(2.9285)
	기타 (404명)	.2005(.4009)	1.0099(3.8534)
	F값	9.988**	.343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2명)	.1667(.3753)	.6806(2.2817)
	100만원~200만원 (216명)	.2454(.4313)	1.2407(4.4864)
	200만원~300만원 (129명)	.2326(.4241)	.8992(3.0615)
	300만원 이상 (54명)	.2037(.4065)	1.1481(3.4663)
	F값	.698	.504

* p<0.05, ** p<0.01

2. 요인별 설명모형

성매매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나타난 사회 기능적 태도와, 접대·향락문화, 성구매 접근성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각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사회 기능적 태도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표 7>에서 제시하였다.

<표 7> 사회 기능적 태도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N=471

변수	(1)	(2)	(3)	(4)	(5)	(6)
(1) 기능적 태도	1.000					
(2) 연령	.128**	1.000				
(3) 혼인상태	.121**	.672**	1.000			
(4) 학력	-.031	-.281**	-.239**	1.000		
(5) 직업	-.096*	-.196**	-.141**	-.072	1.000	
(6) 월평균소득	.097*	.036	.079*	.200**	-.078*	1.000

* : p<.05 ** : p<.01

사회 기능적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연령과 혼인상태, 직업과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상관계수는 .128이고, 혼인상태는 .121, 월평균 소득은 .097로 모두 정적(正的)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경험이 있는 경우, 소득이 많

을수록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기능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업에서는 -.096의 부적(負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전문직이 아닌 다른 직업에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은 사회 기능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모형의 각 독립변수가 사회 기능적 태도가 갖는 설명력은 2.1%로 낮은 편이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유의미한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사회 기능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N=470

독립변수	사회 기능적 태도		
	b	β	t
연령	-.001	.071	1.125
혼인상태	.106	.051	.835
학력	-.011	-.021	-.435
직업	-.196	-.069	-1.477
총소득	-.001	.089	1.910
상수	-.227		-.440
Adjusted R ²		.021	
F		3.037**	

* p<.05, ** p<.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 남성들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총소득이 높을수록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력에 있어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

적 태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학력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인과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두 번째, 접대·향락문화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9> 접대·향락문화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N=471

변수	(1)	(2)	(3)	(4)	(5)	(6)
(1) 접대·향락문화	1.000					
(2) 연령	-.006	1.000				
(3) 혼인상태	-.052	.672**	1.000			
(4) 학력	.056	-.281**	-.239**	1.000		
(5) 직업	.004	-.196**	-.141**	-.072	1.000	
(6) 월평균소득	.058	.036	.079*	.200**	-.078*	1.000

* : p<.05 ** : p<.01

다음은 성구매 접근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이다.

<표 10>의 결과에서 성구매 접근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연령과 혼인상태로 나타났다.

<표 10> 성구매 접근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N=471

변수	(1)	(2)	(3)	(4)	(5)	(6)
(1) 성구매 접근성	1.000					
(2) 연령	-.093*	1.000				
(3) 혼인상태	-.080*	.672**	1.000			
(4) 학력	.053	-.281**	-.239**	1.000		
(5) 직업	-.054	-.196**	-.141**	-.072	1.000	
(6) 월평균소득	.023	.036	.079*	.200**	-.078*	1.000

* : $p < .05$ ** : $p < .01$

연령의 상관계수는 -.093이며, 혼인상태는 -.080으로 모두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성구매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은 성구매 접근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회귀분석이다. 성구매 접근성에 대해 인과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변수는 없었다.

<표 11> 성구매 접근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N=470

독립변수	성구매 접근성		
	b	β	t
연령	-.010	-.082	-1.293
혼인상태	-.069	-.034	-.541
학력	.006	.013	.265
직업	-.205	-.072	-1.535
총소득	.001	.020	.430
상수	.415		.800
Adjusted R ²		.005	
F		1.476	

* p<.05, ** p<.01

성매매에 대한 태도 요인 각각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는 연령과 혼인상태, 직업과 월평균 소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접대·향락문화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 접근성은 연령이 낮고 미혼인 경우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태도별 인과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구매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성구매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분형 척도를 구성하여 성구매 경험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고 성구매 경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측정하였다.

전체 응답자 477명중 결측치 6명을 제외한 471명에 대해 106명이 성구매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성구매 경험이 없는 경우는 0,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처리하였다.

<표 12> 성구매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N=471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기능적 태도	.410	.117	12.375**	1	.000	1.507
접대·향락문화	.388	.122	10.120**	1	.001	1.474
성구매 접근성	.494	.128	14.818**	1	.000	1.638
연령	.018	.021	.705	1	.401	1.018
기혼	.647	.325	3.972*	1	.046	1.910
학력	.001	.068	.000	1	.992	1.001
기타직업	.816	.315	6.718*	1	.010	2.262
소득	-.001	.001	.253	1	.615	.999
상수	-2.230	1.375	2.631	1	.105	.108

1) 혼인상태의 미혼, 직업의 전문직이 기준변수이다.

2) 예측성공률: 77.9%, -2LL=449.238, 모형 χ^2 =53.064, d.f=8, Nagelkerke R²=.162

<표 12>의 결과에서 성구매 경험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77.9%이다.

성구매 경험 발생 확률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 기능적 태도, 접대·향락문화, 성구매 접근성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중 성구매 접근성의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구매 접근성이 1만큼 증가할 때, 성구매 경험을 하는 확률이 1.638배 만큼 높아짐을 의미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는 1.507배이고, 접대·향락 문화는 1.474배가 나왔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기혼일 경우, 성구매 경험 확률이 1.901배로 높고,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 종사자보다 타 직종의 종사자들이 2.262배 높은 성구매 경험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성구매 접근성,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기능적 태도, 접대·향락문화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구매 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중에는 혼인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기혼인 경우 성구매 경험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업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 성구매 횟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1) 상관 분석

성구매 횟수와 성매매에 대한 세 가지 태도 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13>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구매 횟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 접대·향락문화와 성구매 접근성 모두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혼인상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 횟수에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의 상관계수는 .264이고, 접대·향락문화와 성구매 접근성은 모두 .116으로 정적(正的)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성구매 횟수에 대한 혼인 상태는 -.098로 부(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미혼일수록 성구매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는 연령과 혼인 상태, 직업, 월평균 소득에 따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상관계수는 .133이고, 혼인 상태는 .121, 월평균 소득 .100으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의 경우 -.093으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접대·향락문화는 다른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구매 접근성의 상관관계는 연령과 혼인 상태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082, 혼인 상태는 -.080으로 모두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성구매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 성구매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관분석

N=471

변수	(1)	(2)	(3)	(4)	(5)	(6)	(7)	(8)	(9)
(1) 성구매 횟수	1.000								
(2) 기능적 태도	.264**	1.000							
(3) 접대·향락문화	.116**	-.003	1.000						
(4) 성구매 접근성	.116**	-.005	.005	1.000					
(5) 연령	-.038	.133**	-.016	-.082**	1.000				
(6) 혼인상태	-.098*	.121**	-.053	-.080**	.678**	1.000			
(7) 학력	.041	-.035	.061	.048	-.276**	-.242**	1.000		
(8) 직업	-.027	-.093*	-.004	-.050	-.204**	-.136*	-.077*	1.000	
(9) 총소득	.004	.100*	.057	.019	.042	.079*	.203**	-.082*	1.000
평균	1.051	-0.01	-0.01	-0.01	32.96	.61	14.62	.86	198.41
표준편차	3.734	1.000	1.000	1.000	7.83	.49	1.88	.35	89.22

* : p<.05 ** : p<.01

성구매 횟수와 성매매에 대한 태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상관 관계에서는 사회 기능적 태도, 접대·향락문화, 성구매 접근성, 혼인 상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구매 태도가 높을수록 성구매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혼인 상태의 경우 미혼이 기혼보다 성구매 횟수에 있어서 유의미하다.

(2) 중회귀분석

성구매 횟수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태도, 사회인구학적 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구매 횟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매매에 대한 태도 변수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14>의 결과에 의하면 회귀모형의 적합도인 F값은 7.27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²값은 .096으로 각 독립변수가 성구매 횟수에 대해 9.6%의 설명력을 갖는다.

<표 14> 성구매 횟수에 대한 중회귀분석

N=470

독립변수	성구매 횟수		
	b	β	t
사회 기능적태도	1.044	.280	6.273**
접대·향락문화	.412	.110	2.506*
성구매 접근성	.404	.108	2.455*
연령	.013	.029	.468
혼인상태	-1.00	-.131	-2.167*
학력	.041	.021	.436
직업	-.083	-.008	-.171
월평균 소득	-.001	-.028	-.607
상수	.923		.493
Adjusted R ²		.096	
F		7.272**	

* p<.05, ** p<.01 (단측검정)

성구매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독립변수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와 접대·향락문화, 성구매 접근성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의 상대적 설명력은 사회 기능적 태도가 .280이고, 접대·향락문화가 .110, 성구매 접근성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혼인 상태로 -.13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구매 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혼의 경우 더 많은 성구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매매에 대한 태도 중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 접대·향락문화, 성구매 접근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가 성구매 횟수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성구매 경험 발생에 성구매 접근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성구매 횟수의 영향력이 큰 요인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임을 알 수 있다. 혼인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결과는 미혼자의 성구매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남성의 성구매 경험과 성매매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성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성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성구매 행동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라북도내 20대 이상 남성 47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통해 남성 성구매 실태와 성매매에 대한 태도 요인을 알아보았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성구매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상관분석, 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결과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 477명이다. 연령대는 20대가 29.1%, 30대는 57%, 40대 이상이 13.8%를 차지하였다.

성구매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성매매 집결지,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증기탕, 방석집, 인터넷 채팅 성매매를 이용 경험 유무에 106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최다 이용 경험의 횟수는 42회까지 있었다. 성매매 집결지는 이용 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14.7%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석집이 7.8%, 안마시술소는 5.7%, 증기탕은 3.1%, 티켓다방은 2.7%, 퇴폐이발소는 2.5%, 인터넷 채

팅 성매매는 2.1%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세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1) 사회 기능적 태도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는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여성들이라는 입장과 성산업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있어야 성폭력이 예방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태도는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이러한 태도가 높게 나타난 남성의 특성은 연령이 높고, 기혼자일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이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 기능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 사람이 성구매를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접대·향락문화

접대·향락문화는 스트레스를 풀거나 즐기기 위해 유흥업소를 찾는다와 남성들끼리 회식이나 술자리를 하면 애사심이나 동료애가 강해진다는 태도와 유흥업소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더라도 다시 찾게 된다는 태도로 설명된다. 한국 사회의 경우 접대와 회식 등 향락적 놀이문화를 통해 성구매가 개인의 특성과 욕구 해소보다 집단적인 문화로서 성구매를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성구매 경험 유무와 횟수에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접대·향락문화 태도가 높은 특정한 남성 집단의 경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남성 문화 전반에 이러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성구매 접근성

성구매 접근성은 내가 원할 때마다 성상품화 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와 돈을 주고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태도이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보다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더 낫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태도가 높게 나타난 남성 집단의 특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성구매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 접근성이 높은 성구매 경험과 성구매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구매 접근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구매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구매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인식은 성구매 행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남녀에게 상이하게 적용되는 성의 이중 규범 하에서 성매매는 남성에게 ‘필요’로 옹호되고 여성에게는 ‘악’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욕과 성역할의 차이는 구별되지 않으며 동등한 것으로 반증되고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과 착취, 고통에 대

해서는 외면해왔다. 김현선(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성매매 피해 여성은 대부분 사기 광고나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되었으며, 이들의 대한 신체적·성적 폭력은 매우 심각하여 자기학대나 우울증, 인격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의 96%가 성매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고, 90%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공창 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회의 남성 의식에 자리잡고 있는 성매매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릇된 견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기업의 접대비 관행에 대해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기업 경제 활동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접대비를 인정하였다. 이는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문화로서 성산업이나 향락 산업이 국가 산업의 기능처럼 인식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접대와 향락 문화의 용인은 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구매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 발달과 성상품화 현상으로 성구매 접근성 용이함에 따라 성구매 경험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규범과 도덕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성구매 접근성을 낮추기는 비현실적이다. 1991년 장필화·조형의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중 혼전 성관계를 갖지 않은 남성들의 이유에 대해서 ‘그럴 기회가 없어서’(27.6%)라는 응답이 차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양한 성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성구매 접근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성구매 접근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성구매 행위에 대

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서구의 경우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이나 신상공개 및 고객 창피 주기, 또는 함정수사를 이용하여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에 대한 성구매자 신상공개 등으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성구매 행위에 대해 범죄로서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국내의 성구매 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미비한 현실에 비해 세계 각국 정부의 성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사업과 정책적 대안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여성부(2002)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대안사례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예방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남성들의 자발적인 단체와 조직을 지원한다. 이 중 “위기센터”와 “남성 폭력에 대한 남성연대” 등과 같은 조직은 남성들을 위해 남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 남성 단체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 남성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를 개선할 방법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기관별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성구매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돕고 변화시키기 위해 “스웨덴의 성구매 남성 연구”⁴⁾와 같은 남성 연구가 활발히 수행, 지원되고 있다.

1997년에 시작된 성구매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KAST(Köpare Av Sexuella Tjänster)라는 프로젝트는 괴테보르그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으며, 성구매자에게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AST는 신문과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함으로써 남성구매자에 대한 접

4) “Male Customers of prostitution in Sweden”(1996) ; 장필화·정현미 외(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대안사례연구』, 여성부, 재인용.

근을 용이하게 했는데 많은 남성들(최초에 모집된 인원 400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들 중 수십 명은 아주 오랜 기간동안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KAST 운영자와 함께 고객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는 남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여성구매자에게도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 현재 말모와 스톡홀름에서도 시행을 위한 준비중에 있다(장필화 외, 2001).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둔 “성차별에 반대하는 남성들을 위한 전국 조직의 남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Ending Men’s Violence Task Group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Men Against Men’s Violence)”는 친페미니스트적 프로젝트와 남성 폭력 근절을 위해 남성들과 함께 하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브룩클린에 본부를 둔 “포르노에 반대하는 남성들(Men Against Pornograph)”은 포르노와 성매매 옹호론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시각을 가진 남성의 활동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캐슬린 배리, 1995).

일본에서는 “아시아의 성매매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모임”(Men’s Group Against Prostitution in Asia)이 결성되면서 남성 자신의 성구매 자로서의 경험을 고백하고 성매매를 남녀차별과, 인권문제로 생각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모임 구성원들이 모여 위안부 문제나 성매매 문제, 포르노 비디오 등 문제, 성, 남녀역할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이나 공부방, 책자와 같은 형식으로 접근했다.

본 연구는 성매매에 대한 남성의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성구매 경험에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구매 행동에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을 법적·제도적 장치 문제와 정치·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기제를 살피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양적 접근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어 질적 접근으로 정서적이고 복합적인 성의식과 성구매 행동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성구매 경험 요인을 탐색하여 성구매에 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한국 사회 남성이 지니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성구매 경험의 특성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세움으로써 성구매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은경 (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2002),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부
- 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구여성회 (2003), 『이중성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대구지역 남성 성문화 조사를 중심으로-』 자료집
- 또하나의 문화 (1995), 『지배문화와 남성문화』, 또하나의 문화
-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윤덕경·박현미·황정임 (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여성부
- 새움터 (2001),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 여성부 (2001), 제6회 여성주간기념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마련 공청회』 자료집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7),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원미혜 (1999),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녘
- 이성숙 (2002),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 일레인 김·최정무 편저(2001), 『위험한 여성』 (도서출판 삼인)

- 장필화·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8집
- 장필화·정현미 외(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대안사례연구』, 여성부
- 전북여성단체연합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2002), 『전라북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 정경숙 (2001), “십대 소녀의 성적거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유성 (2001), 『따로와 끼리 : 남성 지배문화 벗기기』, 책세상
- 조정문 외 (2000), 『남성학과 남성운동』, 동문사
- 하은경 (1994), 『그러나 매춘은 없다』, 새길
- 홍두승 (1987),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 한국여성단체연합(1998), 『3차 한국남성의 성문화』 자료집
- Barry, Kathleen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정금나, 김은정 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도서출판 삼인, 2002)
- Gould, A. (2001), “The Criminalisation of Buying Sex: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in Sweden”, *Journal of Social Policy* V. 30(3):437-456.
- Jaggar, Alison (1996),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매매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워크샵 자료집.

- Moon, Katharine H.S. (1997),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이정주 역, 『동맹국의 섹스』, 도서출판 삼인, 2002)
- Monto, Martin A. (2000), “Why Men Seek out Prostitutes”, *Sex for Sale: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sex industry*, edited by Ronald Weitzer, Routledge. : pp. 67~83.
- Truong, Thanh-Dam (1990),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ion and Tourism in Southeast Asia*, Zed Books Ltd.
- McKeganey, Neil & Barnard, Marina (1996), *Sex on the streets : prostitutes and their clients*, Open University Press